

[심층] >> 3면
젠더 불균형

[기획] >> 4면
학생 대표자 선거

[사회] >> 8면
정부 전세대책 논란

[인물] >> 12면
엄홍길 대장을 만나다



지난달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5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학교 양캠퍼스 20개 단과대학 중 13곳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반복적으로 선거가 무산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5면에서 계속

글·사진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우리학교 2021학년도 입학 면접 고사 진행해

지난달 21일과 22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2021학년도 양캠퍼스 수시모집 입학 면접 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해 입학 면접 고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이뤄졌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의 경우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이 각각 공간을 분리해 면접 고사를 치렀다. 고른기회전형 I 지원자는 현장 화상면접 대신 지원자가 사전에 제시된 질문의 답변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 입학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교내 구성

원의 협조 덕분에 면접고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면접 고사에 응시한 강민범 씨는 “면접을 준비하며 표정과 손짓을 신경 썼는데 화상으로 잘 반영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면접 중간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번 달 10일부터 14일까지 2021학년도 논술고사가 준비 및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코로나19 고사장 방역 지침에 따라 설캠 건물 출입이 일부 통제된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업방식 변경돼

지난달 23일, 우리학교는 수업방식을 전면 비대면으로 변경할 것을 공지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24일부터 수업방식이 전면 비대면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학원 수강생 10명 이하 소규모 강좌△체육 실기 강좌△학부 수강생 30명 이하이공계 실험·실습 수업은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담당 교수와 수강생 간 합의를 통해 수업방식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이에 김도원(중국·중외통 20) 씨는 “최근 다른 대학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불안했는데 변경된 수업방식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에게 ‘HUFS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을 공지했다. 총 5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시험△학생자치 시설의 운영방식은 유동적이다.

우리학교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해 지속적으로 학교와 면담을 가지며 학교 측에 강의 유형 불문 전면비대면 수업을 실시해야 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와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의견 차를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시행된 현재, 한동안 갈등은 자연스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태양과 바람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삶은 풍요로워지고
세상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탄소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출근하는
에너지 효율의 시대

한국전력은 에너지 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송도캠퍼스 개발사업 협력 MOU 체결식 열려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 개발사업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개발 협력대상은 △한국투자증권△현대건설△ZINOL D&C다. MOU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김용식 한국투자증권 그룹장△김용식 현대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정향돈 ZINOL D&C 대표가 서명했다.

우리학교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의 연구 콤플렉스(Complex)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기숙사△데이터 플랫폼 콤플렉스 등을 송도캠에 건립할 계획이다. 건물엔 각각 약 △300억△300억 △2,400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첨단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40명 정원의 데이터 관련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학과 성격과 교과 과정은 검토 중이다.

송도캠 개발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플랫폼 캠퍼스 조성이다. 데이터 플랫폼 캠퍼스란 데이터 △분석△저장△지식추출△처리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신개념 미래형 캠퍼스다. 우리학교는 송도캠 입주 기



▲MOU를 체결한 각 기관 대표 (출처: 우리학교 전략홍보팀)

업의 △기반시설△데이터센터△인력을 우리학교의 △교육△연구△첨단기술 전문가 인력양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협력기금을

조성해 데이터 교육 및 연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김 총장은 “디지털 뉴딜을 향한 혁신이 시작됐으며 송도캠은 첨단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계△연구△학계 분야 협력 사업들을 검토해 유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송도캠 3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 MOU 체결에 학내 구성원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보경(공과·컴전 17) 씨는 “3,000억 원이 투자되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우리학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며 첨단과학 관련 학과 개설에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태국어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A 씨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학교에 다니며 학교 시설상 재정 보충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느낀 부분이 많았다”며 송도캠 개발 전에 기존 캠퍼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단 바람을 전했다. 더불어 학교 측 관계자는 “송도캠 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긴 했지만 MOU는 체결 내용에 구속력이 없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우리학교, 유학생 등록금 6% 인상해

지난달 19일,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이 통과됐다. 이에 다음 해부터 기존 유학생 등록금에서 6%가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학교 유학생 A 씨는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미 내국인 학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유학생들이 어려운데 등록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 추진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18일 제8차 대학평의회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엔 학생대표로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장과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장은 이번 해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에 드러난 우리학교 재정 상황에 대한 심사와 자문을 맡았다.

유학생 등록금 인상안은 추경 예산안 수입 부문에 기재됐다. 학교 측은 최근 3년간 유학생 등록금이 인상된 적 없으며,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던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학교의 유학생 등록금은 인상돼도 △건국대학교△서강대학교△한양대학교 등 다른 학교보다 낮다”고 전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을 통해 얻은 6억 원의 추가 예산은 학생 지원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의 재정 상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은 줄고 △기숙사 비용 반환

△비대면 강의 장비 마련△학생식당 인건비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이어져 재정이 악화했다. 또한 사업지원처 운영이 적자를 기록해 53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총 20억 원의 송도캠퍼스 토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수입·지출 경비를 조정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 관리비△연구·학생경비 등의 항목에서 예산 감축이 이뤄졌다. 이 중 감액된 연구·학생경비는 약 57억 원이다. 연구·학생경비는 교수 연구 지원비와 교내장학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 13억 원과 30억 원이 감소했다. 교내장학금 중 12억은 ‘7+1 파견학생제도’ 지원금이다.

양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지난달 19일 설캠 총학 ‘새벽으로부터’는 공식 SNS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은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재정 손실을 벌충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경기가 악화해 유학생 사정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가혹한 처사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생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부당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글캠 총학 ‘더 본(The 본)’ 또한 입장을 같이했다. 박 회장은 우리학교 구성원인 유학생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을 표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우리학교 철학과 창학 40주년 맞아

우리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는 이번 해 창학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 SNS에 학과 홍보 영상을 게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1980년 학과 신설 이후 그간의 행적을 담은 ‘4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데미우르고스 학술제전은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학술제는 △테카르트 철학△장자 제물론△헤겔 법철학을 주제로 한 4편의 논문 발표와 논평으로 구성됐다. 이에 몇 편의 논문을 더해 학부생 학술지 ‘외대철학’이 출간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에 진행된 동문 선배 취업 특강은 철학과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하고 홍영태 ‘비즈니스북스’ 대표가 멘토로 참여했다. 대면 특강인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 철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했다. 지난달 18일과 19일엔 강경덕 우리학교 철학문화연구소 교수와 김세서리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이 동서 여성주의 철학 특강을 맡았다. 이어 26일, ‘현대중국과 중국철학’ 해외학자 특강에선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 대학 역사학과 교수가 중국의 현정 논쟁을 돌

러싼 철학적 입장을 전했다. 동문 선배 취업 특강을 제외한 전체 행사는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동시 송출이 이뤄졌다.

동문 선배 취업 특강 기획 및 진행에 참여한 시흥주(인문·철학 18) 씨는 “창학 40년을 기념해 동문 선배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특강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철학과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홍성민 우리학교 철학과 학과장 교수는 “철학과의 40년 역사는 학생의 역사다”며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질문을 던질 준비가 돼 있는 우리 철학과 학생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학교 철학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철학·윤리 교육대학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CORE 사업에 선정돼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국 남창대학교와의 학술교류를 통해 MOU를 체결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2021학년도 1학기부터 EU 융합전공 개편·신설해

우리학교 EU 융합전공이 다음 학기부터 개편됨에 따라 △국제관계 속 중동부 유럽△유럽의 국경과 이민△유럽연합의 공동외교 안보△유럽의 대외경제 정책과 통상 등의 과목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 및 신설은 기존 수업내용이 반복된 단 학생들의 지속적인 평가가 발단이였다. 여성호 EU 융합전공 조교는 “학생 요청과 현 추세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됐다”며 국제기구에 대한 심층적 이해 증진 기회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U 융합전공은 ‘EU 전공’과 ‘사회과

학 및 언어학과 수업’을 연계해 유럽연합에 대한 폭넓은 지역학적 탐구를 통한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다. 교과과정은 유럽연합의 △경제△문화△사회△역사△정치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기초 교양△기초사회과학△EU지역학△EU전공 네 개의 교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유럽에 대한 학제간 접근이 가능하다. 유럽과 관련 국가들의 관계 및 주요 현안을 동시에 다룬다는 측면에서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한 전공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하늘 기자 01haneul@hufs.ac.kr

연말정산 보도

A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교수 관여 정황 포착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아시아언어문화대학 A학과 교수의 학생회장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다수의 익명 취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A학과 교수가 학생회장 출마 희망자 B 씨의 후보자 등록을 저지했다. 이에 단일 후보가 된 다른 후보자 C 씨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취재원에 따르면 교수는 B 씨의 나이를 이유로 출마에 반대했고 이를 전달받은 해당 학생은 출마 의사를 꺾었다. 이에 대해 A학과 학생회장 C 씨는 금시초문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후보자가 결정되거나 단일 후보 출마로 당선이 유력할 경우 이를 교수에게 전달할 순 있지만, 교수가 학생회장 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물 밑에서 이뤄진 일이라 학생회 관계자라도 정황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원에 따르면 교수는 공식적인 결정 권한을

갖진 않으나 △과내 프로그램 참여△나이△성별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 적절성에 대한 암묵적인 압력을 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교양 필수 과목인 신입생 세미나에서 A학과 교수가 부모의 직업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해당 교수는 장학금 지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며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잇달아 교수의 권력 남용 문제가 발생하며, 당시 학내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A학과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가 해결될 진 미지수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A 교수, 다시 강단에 올라

지난 7월 31일, 과거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가 국제지역대학원 주임교수로 재임명됐다. 2018년 A 교수는 교내 성폭력 혐의로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징직 처분을 받았다.

A 교수가 복귀한 배경엔 학생 요청이 있었다. 해당 학계는 다른 지역 학문과 비교해 규모가 작아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A 교수의 부재로 학문 연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A 교수 복귀를 위한 학과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김원호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장은 “A 교수 복귀 배경에 다른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항상 학생 요청이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우리학교엔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규칙 등 성폭력 대응체제가 존

재한다. 그러나 A 교수가 복귀하며 우리학교 기존체제의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단 의견이 대두됐다.

한편 성폭력 관련 사건은 △사건 발생△신고△사후 처리가 모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이에 전담기구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학교 성평등센터의 경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성평등센터의 상담 인력과 행정 직원은 계약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성평등센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업무 특성상 사건 관련인과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여전한 젠더 불균형, 본질적 해결 필요할 때

시대가 변화하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및 사회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수△대기업 임원△로펌 임원 등의 성비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학교 역시 젠더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에 전문가는 해결 방법으

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및 학내 젠더 불균형△젠더 불균형의 영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에 만연한 젠더 불균형

현재 우리나라의 젠더 균형은 기울어진 상태다. 여성의 대학진학을 및 사회참여율은 증가했지만 남성 위주 사회문화는 여전히 공고하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학진학률은 남성 대학진학률보다 7.9%p 높은 73.8%다. 이 격차는 2005년도에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 대학진학률을 0.4%p 추월한 이래 계속해 벌어졌다. 또한 통계청에서 매해 발표하는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 사회참여율은 53.2%에서 54.1%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수△대기업 임원△로펌 임원△정계 등에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하반기 국립대학교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전체 전임교원 중 16.9%에 불과했다. 사립대학교 여성 교원 비율 또한 2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의 이번 해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임원은 올해 286명으로, 전체의 4.1%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로펌과 국회의원 내 여성 비율도 각각 24.49%, 19%로 저조하다.

이런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은 32.4%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3.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이번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성 생계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3월 이후 성별 고용률 격차는 19% 이상 벌어졌다. 또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성 10명 중 1명이 실직을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이 가장 돌봄 부담으로 퇴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우리학교의 젠더 균형은

우리학교는 여성 비율이 높은 대학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학교 입학생 성비는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엔 여성 입학생 2,051명, 남성 입학생 1,308명으로 차이가 743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또한 여성 입학생은 지난 5년간 1,961명에서 2,051명으로 증가했지만 남성 입학생은 1,394명에서 1,308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지난해 △고려대학교△건국대학교△서강대학교△연세대학교 등 주요 대학교의 입학생 성비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학생 자치에서의 여성 비중도 크다. 이번 해 비상대책위원회인 △상경대학△인문대학△자연과학대학의 학생회를 제외한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성비를 비교하면 여성 11명, 남성 9명으로 여성이 더 많다.

그러나 우리학교 교수 성비에서 젠더 균형은 무너졌다. 압도적으로 남교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우리학교 전임교원 중 남교수 245명, 여교수 51명이다. 남교수와 여교수의 수 차이가 약 5배인 것이다. 또한 이번 해 우리학교 신규 교수 3명은 전원 남

성이다. 지난해에도 신규 남교수는 4명인 것에 비해 신규 여교수는 2명에 그쳤다.

비전임 교원 중 전임 강사 수에선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남성 전임 강사 수는 177명인 반면, 여성 전임 강사 수는 약 2배인 310명이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연평균소득은 8,157만 원이다. 조사의 전체 연평균소득이 4,24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강사의 경우 시급으로 급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소득을 얻는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약 6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학 강사가 대량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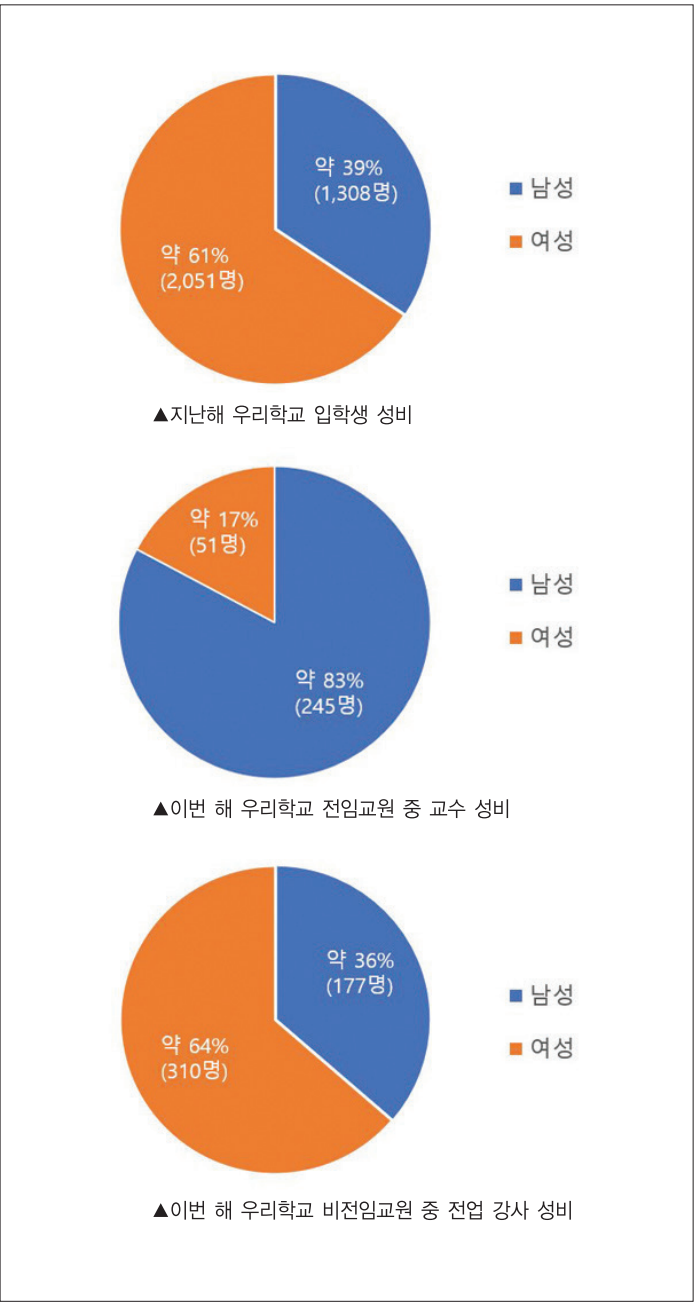
◆젠더 균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번 해 1월부터 6월까지 여성 자살 사망자는 1,92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p 증가한 수치로, 남성 자살 사망자가 6.1%p 감소하고 전체 사망자도 2.4%p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현상에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이하 정교수)는 자살 원인에 대해 젠더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정교수는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사회적인 지위로 이전되지 않는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며 자살 원인을 추측했다.

여성 자살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뽑히는 생계 불안에 대해 정부는 △긴급 생계 및 돌봄 지원△고용안정 및 청년구직 지원△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며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교수는 “돌봄 지원과 같은 가족 형태의 접근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 살고자 하는 젊은 여성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월구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학교는 20대 여성이 다수 재학 중인 공간으로 젠더 불균형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유라(사회·미디어 18) 씨는 “이미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이기에 여성이 침투하기엔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며 무력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학생들의 젠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가법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주웅(상경·국통 19) 씨는 “젠더 불균형이 항상 일어나고 있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교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젠더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바라볼 것을 주장했다.

이창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성평등센터 센터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내 젠더 균형은 맞춰질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국립대학교 여성 교원 비율 확대 정책에 사립대학교가 포함된다면 젠더 균형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사회와 학교가 젠더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대학알리미 자료)

고됐기 때문에 시간 외 업무량이 배로 늘어 사립대학교 강사의 평균소득은 약 1,247만 원에 불과하다.

우리학교 교무행정팀 관계자는 이런 교강사 젠더 불균형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다”며 “교강사 채용 시 이미 지원자 성비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선 다른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양캠퍼스 선거운동, 그 현장 속으로

지난달,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제4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ON’(이하 ON 선본)이 입후보했다. 또한 양캠퍼스(이하 양캠) 단과대학(이하 단대)중 총 7개 단대에서 학생회장 후보자가 나왔다. 이번 해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선거운동과 투표가 모두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ON 선본과 양캠 단대 학생회 공약을 분석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 글캠 총학 후보 ON, 선거 진행 과정은?

지난달 17일, ON 선본은 총 선거인단 수 7,143명 중 약 10.08%인 720명의 학생 추천을 받아 입후보를 완료했다. 이번 해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명부 작성이 불가능했다. 이에 글캠 제4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글캠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해 비대면 추천인 서명을 진행했다. 글캠 선관위에선 비대면 추천인 명부 양식을 SNS를 통해 일대일 전달하도록 지정했다. 선거유세는 대면·비대면을 병행했다. 지난달 26일엔 제4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정견토론회(이하 정견토론회)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됐다. 정견토론회는 ON 선본 공약에 대한 △선관위△재학생△학내 언론사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ON 선본은 ‘NO에서 ON으로, 변화의 시작’이란 선거유세 문구와 함께 전반적인 학내 사안에 대한 공약을 수립했다. 자세한 공약은 아래와 같다.

교육	△강의 수요 조사 후 개설 및 총원△온라인 강의 최신화△RC영어 개선
균형	△강의평가 내용 교원평가 반영 △대학본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 △‘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개설 △총장선거 준비 TF팀 구성
복지	△기숙사 식당 열람실화△기숙사 짐 보관 서비스 △면접 시험 준비 지원 △방학기간 신기숙사 사용△백년관 열람실 좌석자동반납기△선행 연계 복지 공약
소통	△내가 만드는 외대△단과대별 공약 이행을 공시 △총학생회 온라인 청원제△함께하는 총학생회 운영
연대	캠퍼스간 공동회의·학술대회 개최
인권	△교수신고제 도입△배리어 프리한 외대 ON △장애학우 도우미 모집 방식 개선 △총학생회 산하 인권부서 설립△통합인권센터 설립
제도	△미네르바 평가방식 전환 △수강신청 내역 상시 삭제 가능 △장바구니 담은 인원수 표시△잔여학점 확인 기능 도 입집집중 학기제△튜터링제도 모집방식 변경
HUFS	대학평의회 구조 개선, 학교 발전 계획 분석 및 대처

▲ON 선본 공약

ON 선본은 공약을 8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공약에 대해 ON 선본은 “이번 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느낀 부당함을 상쇄하기 위한 공약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수신고제△대학 본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학생 중심적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학생 의견을 대변하는 총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정견토론회에선 공약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특히 집중학기제 및 학생 인권 관련 공약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공약 중 하나인 집중학기제는 기존 16주 교과과정을 8주로 단축 이수하는 제도다. ON 선본에 따르면 집중학기제 강의는 △실습△이론△회화 수업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그 후 학생 수요에 따라 외부 교원을 증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강사법 시행 이후 교원 유지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집중학기제에서 교원을 증원할 경우 예산마련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ON 선본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 인정하며 시행 전 교수와 원활한 협의를 거치겠다



▲ON 선본

고 말했다.

학생 인권은 대학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학교는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두고 있다. 성평등센터에선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전문 상담과 즉각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학생상담센터는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ON 선본은 두 센터를 합친 통합인권센터를 설립해 식이 소수자, 성 소수자 등 인권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목적과 업무가 뚜렷한 기존 센터를 통합할 경우 오히려 방향성을 잃을 수 있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ON 선본은 선거 진행과정 중 3번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9일엔 선거시행세칙 제7조6항을 위반했다. 김온유(통번역·영어 15) ON 선본 정후보는 기존 영어통번역학부 학생회장직을 사퇴했으나 학생대표자 단체채팅방을 나가지 않아 선관위 측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선관위가 지정한 ‘오프라인 유세 제한에 따른 온라인 유세 방식’에 따르면 선거본부의 온라인 유세는 ON 선본의 △선본장△정후보△부후보만 각 단대 대표자에게 연락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윤정현(공과·컴전 18) ON 선본 부후보(이하 윤 후보)가 단대 대표자가 아닌 단대 간부에게 SNS 공유를 요청해 선관위 측의 ‘주의’ 징계를 추가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정견토론회 중 윤 후보는 정책자료집에 공약이 잘못 명시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시정 요청을 하지 않아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22조6항 위반이라 판단해 시정명령 징계를 부과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정견토론회에서 지난해 공과대학 학생회장 출마 당시 공약이 4개라고 말했으나 실제 5개인 것으로 파악돼 선관위는 이를 거짓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증으로 간주해 ON 선본에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ON 선본은 윤 후보가 허위 사실을 말할 의도가 없었던 것과 그 증언이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단 점을 근거로 이의제기했다. 선관위는 이를 수렴해 징계를 철회하고 ON 선본에 정정문 게시를 명령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ON 선본은 SNS에 정정문을 게시했다.

◆ 양캠퍼스 단과대학, 후보 현황과 그 공약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12개의 단대 중 △국제학부△사회과학대학 △중국학대학 총 3개 단대에서 학생회장 선거 후보자가 등장했다. 글캠의 경우 8개의 단대 중 △공과대학△동유럽대학△바이오메디컬공학부

△자연과학대학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양캠 단대 후보자도 온라인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주로 이번 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학내 행사 강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내 행사 참여가 어려웠던 20학번 학생을 감안해 학술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이 비슷하다. 또한 단대 특색에 맞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중국학대학에선 다른 대학과의 중국어 전공 교류 추진을, 공과대학에선 실험실 안전장비 점검 및 구비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저조한 학생 자치 참여 해결 및 학교 측과 원활한 소통 등이 있다. 이민지(사회·미디어 19) 제3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후보자(이하 이 후보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학생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해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학교 측에 강력히 소통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단대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했다. 지난달 6일부터 이틀간, 노민석 제32대 행정학과 학생회장과 이승훈 제33대 이탈리아어과 학생회장은 설캠 제55대 총학생회장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설캠 선관위)에 특정 인물의 후보자 겸직 금지 조항을 준수하고자 선거 일정 변경을 문의했다. 이에 설캠 선관위는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선거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와 사유가 존재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설캠 선관위는 각과 학생회장이 특정인을 고려해 선거 일정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거시행세칙 제21조2항 위반으로 각과 선거관리위원장이 교체됐다.

중국학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투표까지 모두 완료됐으나 최종 무산됐다. 중국학대학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중국학대학 학생회장 선거 당선 공고문을 게시했다. 공고문 속 투표율은 이번 해 2학기 중국학대학 정회원 중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중국학대학 선거시행세칙 제5조1항에서 “투표율은 선거권을 가진 모든 정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학대학은 선거시행세칙 제66조1항 “학생회장 선거는 50% 이상의 투표율로 성립한다”를 충족하지 못해 학생회장 당선 공고가 무효처리 됐다.

◆ 온라인 선거, 기대와 우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번 해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선거에 맞춰 선거시행세칙 일부가 개정됐고 기존 유인물과 현수막 등은 모두 온라인 게시로 대체됐다. 이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와 정책토론에서 더 많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설캠 총학 지원차장으로서 여러 비대면 행사를 기획했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생도 온라인선거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표했다. 이동준(국제지역·인도 15) 씨는 코로나19 시대에 처음 시행되는 교내 온라인 투표에 대해 “학생의 많은 관심으로 기존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 공정성과 절차 합리성에 대해서도 학생이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경한빛(통번역·중국어 18) 씨는 이번 투표가 앞으로 이뤄질 온라인선거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선거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우리학교 온라인선거 프로그램인 케이보팅(K-voting)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보안 결함 문제가 생겨 논란이 됐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 개인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온라인선거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용이한 새 방안이 될 것인지,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시선이 엇갈린다. 이번 달 내로 총학 및 단대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다. 다음 해를 이끌어갈 각 단위별 학생 자치 대표가 잘 선출될지 그 향방에 주목할 때다.

무산되는 학생 선거, 기울어가는 학생 자치

지난달 9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제55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 자치 침체에 이번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도 작용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예전부터 우리학교 설캠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수차례 무산돼왔다. 단과대학(이하 단대)이나

학과·학부 차원의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번 해 우리학교의 20개 단대 중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7개 뿐이다.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사회 활성화의 척도다. 반복적으로 선거가 무산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학생선거 현황과 선거 무산의 의미

우리학교 각 단위별 학생 선거 및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해 11·12월에 치러진다. 해당 선거가 무산되면 다음 해 3·4월에 보궐선거가 시행되고 이마저 무산될 경우 해당 단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해 우리학교 20개 단대 중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아 선거가 무산된 곳은 설캠 9곳, 글캠 4곳으로 총 13곳이다. 일부 단위에선 선거가 진행됐으나 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효화되기도 했다. 또한 설캠의 경우 후보 부재로 총학생회장 선거마저 미뤄졌다. 이미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2016년△2017년△지난해에, 글캠 총학은 △2014년△2016년△2018년에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년 중 3년간 비대위 체제였던 설캠은 다시 전체학생대표자 자리가 공석이 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칙에 의하면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운위)가 궐위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다. 따라서 이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운위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비대위의 실제 실무 과정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설캠 제53대 총학 비대위장을 역임했던 이 선범(서양어·포르투갈어 17) 씨(이하 이 전 비대위장)는 비대위와 선출된 총학 간의 가장 큰 차이로 정당성을 꼽았다. 비대위는 중운위원 파견을 통해 구성되며 비대위장은 중운위 내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추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긴 하지만 전체 학생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총학에 비해 그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이 전 비대위장은 “학교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학교 측은 그 기저의 학생 지지 정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며 비대위가 정책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53대 비대위가 지난해 전체학생총회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선거 무산이 반복되는 원인

우리학교의 반복적 선거 무산 원인으론 △코로나19 여파△학생 사회에 대한 무력감△학생의 개인화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이 전 비대위장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생 사회에 느끼는 무력감을 언급하며 구성원 요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리학교 총학의 핵심의제가 몇 년째 비슷하단 점을 지적했다. 낡은 의제만이 다뤄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단 것이다.

또한 총장선출권 분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학생들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총학이 관철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학의 힘만으로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 이 전 비대위장은 총장선출권을 쟁취해 학생이 총장을 비롯한 학교 집행부를 견제할 때 비로소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재욱(인문·철학 16) 우리학교 인문대학 비대위장(이하 고 비대위장)은 학생 사회 침체 원인으로 학생의 개인화 경향을 지목했다. 취입

이 어려워지고 소위 ‘스펙’이 중요해지며 학생이 학생 자치에 관심 기울일 여유를 갖지 못한단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비대위장은 이런 학내 분위기 변화를 단순한 학생들의 와해보단 학생 요구의 다양화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내 분위기가 변화하며 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과 같은 학습 공간 관련 요청이 늘어난 점이 예시다”며 다양해진 학생 요구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 비대위장은 코로나19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번 해 초에 예정된 새내기 맞이 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학생회 홍보 기회가 줄며 학생 사회로 유입되는 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또한 축제와 같

사안의 경과 및 성과를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이 정책 진행 상황을 모른 채 기다리기보단 각 사안의 처리 과정과 성과를 세세히 공유할 때 효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수수제에 대해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채널 구축도 강조했다. 학생회가 기존 의제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단 것이다. 고 비대위장은 코로나19 사태 완화가 학생 사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만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해진 학내가 다시 통합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각 단위와 총학이 협력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학교의 역할에도 주목해봐야 한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운영을 위해 자치회비 일부를 양보했다. 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영이 곧 학생 자치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 역시 학생 활동이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이나 빈도 높은 학교·학생 간 의사소통 등을 통해 학생 자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선거 무산과 관련해 의견을 낸 인원 모두가 우리학교 학생 사회의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우리학교 구성원이 학생 자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뭉쳐야 한단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가오는 3월 보궐선거엔 우리학교 학생 사회가 단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나아진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선거 진행 총학생회	선거 무산 총학생회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진행 단과대	선거 무산 단과대
서울캠퍼스: 중국학대학(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산),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서울캠퍼스: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일본어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LD학부, LT학부, 아시아언어문화대학
글로벌캠퍼스: 동유럽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글로벌캠퍼스: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우리학교 학생회장 선거 진행현황

은 주요 행사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학생회의 방향성 및 성과 등에 대해 환기할 기회도 적었다. 백다울(통번역·태국어 20) 씨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반감된 것 같다”며 “학교로부터 몸이 멀어지니 자연스레 흥미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사회·미디어 19)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회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학생이 학생회장 출마를 고민하거나 이를 위한 경험을 쌓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도 후보자 부재로 이번 해 선거가 무산됐다.

선거 무산을 포함한 학생 자치의 위기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1990년대까지 전국 각 대학 총학은 민주화 운동의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고 이에 따라 총학의 사회적 입지도 자연히 작아졌단 의견이 많다. 총학 선거 불발이 잦아진 것도 이 시점부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행사 주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회의 역할이 불분명하단 지적이 많다.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이 전 비대위장은 앞서 언급된 학생의 무력감 탈피를 위해 학생회가



짧지만 깊었던 인도네시아의 하루들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이는 우리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입학 후 교환학생이 되고 싶단 것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지난 학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의 교환학생으로서 실현됐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여유로운 동시에 굉장히 바빴다. 3학점 수업 5개만 들었기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학교를 가고 목요일부터 쉴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바쁜 일상에 지쳤던 내가 원했던 일정이었다. 처음엔 휴일을 이용해 절경 국가인 브루나이 여행도 가며 즐겁게 보냈다. 그러나 많은 과제가 주어지며 현지 학생처럼 해내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조별 과제를 하며 요즘엔 잘 쓰이지 않는 단어가 많아 요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지 친구에게 모르는 단어를 물어봤지만 현지인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 애를 먹었다. 그래도 조별 과제를 망칠 순 없어 제출 전날 밤늦게까지 번역하고 요약해 제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어 실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한 경험으로 남아있다.

1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처음으로 공식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3월 16일에 학교로부터 유학생은 본국으로 귀국해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중단 메일이 왔다. 그래서 3월 마지막 날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남은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채웠다. 시차로 인해 8시 수업을 10시에 들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었다. 부족한 현지 생활 경험과 불안



하는 자카르타 여행지는 이스티크랄 사원(Masjid Istiqlal)이다. 동남아에서 가장 큰 사원인 이곳은 무슬람이 아닌 자에게도 입장을 허가한다. 또한 영어

로 해설을 제공해 우리나라에선 아직 낯선 이슬람 문화와 건축양식을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곳에선 남녀 상관없이 짧은 옷을 입은 자는 사원의 가운을 입어야 한다. 그 외에 △구 시가지 코따 푸아스 독립기념탑 모나스△자카르타 대성당 등도 좋은 여행지다.

이번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며 언어는 사용할 때 가장 빨리 는 단 것을 배웠다. 책에서 배운 언어가 △학교 수업△직접 글을 쓰는 경험△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내 것이 됐다. 짧은 기간이었으나 언어 공부의 방향성을 재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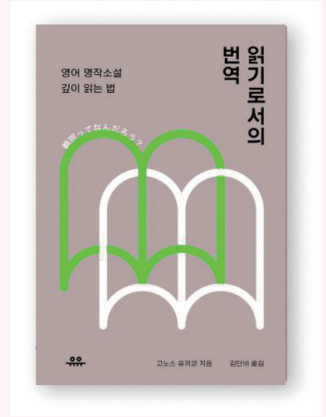
글·사진 정수정(아시아·마인어 17)



일본

<읽기로서의 번역>

- 번역가의 고뇌를 엿보다



해외 작가와 우리나라 독자 사이엔 번역가란 징검다리가 있다.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독자의 이해 폭이 달라질 정도로 그 역할은 중요하다. 지난 10월 이런 번역의 묘미를 알려주는 책이 출간됐다.

‘읽기로서의 번역’은 일본의 영미 문학 전문 번역가 ‘고노스 유키코’(이하 유키코)의 강의 ‘번역으로 맛보는 걸작 10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유키코는 수강생이 번역의 재미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빨간 머리 앤△오만과 편견△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폭풍의 언덕 등 10편의 고전을 엄선했다. 독자는 익숙한 고전으로 번역 과정을 접하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책의 2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선 원서의 언어유희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뇌하는 번역가의 모습이 묘사된다. 발음이 비슷한 ‘pig’와 ‘fig’를 이용한 ‘Did you say pig or fig?’란 원문에 대해 유키코는 다양한 번역 예시를 제시한다. △아예 다른 의미로 변경한 번역△언어유희를 한껏 살린 번역△원어의 의미 그대로 직역한 번역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번역엔 정답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유키코는 4장 ‘허셔가의 몰락’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장을 어떻게 번역할지, 8장 ‘오만과 편견’에선 당시 사회계급의 호칭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번역할지 등을 독자에게 쉽게 전달한다. 막간의 욕설 번역 과정에서 얻는 웃음은 덤이다.

‘좋은 번역이란 무엇일까?’란 물음으로 첫 장을 펼친 독자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어떻게 전해야 좋을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등 번역에 접근하는 새로운 길은 알 수 있다. 이 책은 △고전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영어 공부를 목표로 하는 독자△전문 번역가가 되고자 하는 독자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번역가를 희망하는 독자에게엔 더할 나위 없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작품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번역 독서’의 즐거움을 알길 바란다. 특히 우리학교 통번역 전공 학생은 책에서 말하는 번역의 즐거움을 더 깊이 이해하리라 기대한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0주년 기념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Global HUFs' tory ⑥

글로벌캠퍼스 100년 미래를 그리다
-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백년관 건립전 대운동장 전경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정문에서 정심대도와 기숙사를 지나쳐오면 전면이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을 마주하게 된다. 현재 글캠 본관 기능을 하는 대표 건물 백년관이다.

글캠 공과대학 맞은편의 대운동장 동쪽 편에 들어서 있는 백년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 규모로 5층 높이의 저층부와 11층 높이의 타워부로 나뉘어 설계됐다. 연 면적

6월 개관했다. 준공 직전인 2014년 4월에 2주에 걸쳐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했다. 이 공모전에 약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백년관(本館)’이 공식 명칭으로 선정됐다. 마침 2014년은 우리학교 개교 60주년이었기에 ‘지난 60년 성장을 밑거름 삼아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찬 100년을 그려보자’는 의미가 담겼으며 백년관의 영문 명칭 또한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Centennial Complex’로 명명됐다.

백년관 건축으로 대운동장이 사라져 학생 대규모

게 됐다. 특히 글캠의 가장 현대적인 학습 공간으로 탄생한 백년관에 △그룹 스테디움△멀티미디어실 겸 열람실△세미나실 등이 완비돼 있어 △강의 수강△개인 공부△그룹 스테디움 위해 많은 학생이 찾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존(K-Zone)’과 구성원과 외부인의 접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명수당 홀’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백년관 이전의 글캠 본관 역할을 했던 곳은 명수당 뒤편에 위치해 현재 교양관으로 불리는 건물이며 1983년 글캠에서 두 번째로 지어졌다.

2014년 전까지 총장실을 포함한 주요 행정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지만 이후 백년관에 역할을 물려주고 현재 주로 교양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양관은 여전히 글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교양관엔 일반 강의실과 더불어 다목적 대형 강연단이 있어 대형 강의나 각종 행



▲백년관과 인조잔디 운동장



▲글로벌캠퍼스 구분관 전경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기공식

은 22,401.96㎡(4,991.60평)로 글캠 단독 건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50여 개의 크고 작은 강의실△교수 연구실△국제회의실△전자 열람실△체육관 겸 컨퍼런스 홀 등이 최첨단 시설로 갖춰져 있다.

백년관은 2011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체육 활동은 위축됐다. 그러나 운동장이 자리했던 백년관 전면엔 안전 펜스와 충격 방지 장치를 갖춘 인조 잔디 구장이 조성돼 학생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600여 평 규모의 실내 체육관 및 컨퍼런스 홀이 들어서며 기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마음껏 학술 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

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학교의 미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친 지 일 년 가까이 됐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잠잠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감염자 수 그대로 코로나19와의 사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 다양한 분야는 변화를 준비 중이다.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학 교육은 향후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이번 해를 돌아보며 대학 교육의 미래를 살펴보자.

◆코로나19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은?

우리학교는 지난 학기 개강일을 3월 2일에서 3월 16일로 연기하며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살폈다. 지난 3월 2일, 우리학교 양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날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 ‘웹엑스(Webex)’와 ‘줌(Zoom)’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원격수업의 진행 방식을 교수 재량에 따라 운영해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학기부터 ‘스위치 1, 2 온(Switch 1, 2 on)’(이하 스위치 온) 수업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진행 양상 예측이 어려운 시국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정책의 수립 및 진행 과정에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다.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스위치 온 관련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해당 정책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스위치 2(Switch 2)인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다.

또한 지난 학기에 양캠퍼스 모두 △면학실△체육시설△학생자치공간 등 다중이용시설을 잠정 운영 중단했다. 보건실 주도 아래 건물별로 발열 체크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국제입학관리팀 및 학생지원팀에선 코로나19 모니터링·신속 대응센터를 운영해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신변을 확보했다. 이번 학기 역시 △도서관 열람실△식당△일부 강의실만을 한시적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밀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현재까지 우리학교에선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학생이 평가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처는?

이번 학기에 시행한 스위치 온 정책 및 학생 복지

관련 행정은 학생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외대학보에서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진행한 재학생 대상 ‘우리학교의 코로나19 대처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가 해당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학생 의견 미반영△격주 등교로 인한 통학 고충 심화△방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순이었다. 윤병호 우리학교 설캠 학사종합지원팀장(이하 윤 팀장)은 스위치 온 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선 양해를 구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권성배 글캠 학사종합지원팀장(이하 권 팀장) 역시 “모든 강의실 내 웹캠을 설치와 웹엑스를 활용한 수업 동시 송출로 해당 정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호소한 일부 교강사와 학생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같은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학기 수업 만족도는 27%에 불과했다. 불만족의 이유론 △비대면 수업 질 저하△수업 대비 과도한 등록금△교내 시설 및 복지 이용 불가 순이었다. 김미향(서양어·포르투갈어 16) 씨는 “온라인 수업 상태와 비교해 등록비가 많이 아깝단 생각을 했다”며 “교내 시설 이용 제한 등 교내 서비스 제공이 부실하므로 향후 합당한 등록금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형욱(경영·경영 16) 씨는 “실시간 수업이던 전공 수업이 학생 투표를 통해 녹화 강의로 변경돼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수업 방식 채택에 있어 학생 의견을 반영해 큰 문제없이 한 학기 동안 수업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생 복지 및 방역 측면에선 응답자 중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65%, ‘약간 불만족스럽다’ 23%에 이르며, 불만족스럽단 여론이 88%에 달했다. 그 이유론 등록금 반환 및 기숙사 운영에 대한 불만 사항이 가장 많았다. 지난 8월, 우리학교가 책정한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의 금액이 학생 입장에서 적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탄력적인 스위치 온 수업 정책과 달리 재학생의 기숙사 이용 및 환불 정책은 유동적이지 못해 비판받았다.

방역에 있어선 △방역 장비에 대한 불신△야간엔 운영되지 않는 발열자 확인 체계△학교의 오락가락한 대응 체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학교 대응에 대한 불만 이유엔 감염자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함에도 스위치 온 기존 운영 지침과 달리 즉각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학교 수업 운영 방식 희망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전면 비대면 수업 방식 유지’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전면 대면 수업 전환’이 8%를 기록했다. 응답자 중 4%만이 스위치 온 운영에 찬성했다. 조혜원(아시아·태국 16) 씨는 장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손바닥 뒤집듯이 대면·비대면 수업을 바꾸는 것은 지방 거주자에겐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학교 교육 운영이 일관적이지 못하면 자취방이나 기숙사를 계약하는 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치 2가 시행되자 기숙사에 입사한 재학생은 환불 요구와 관련해 불편함을 보였다.

우리학교 향후 운영방식 개선 희망 사안으로 ‘학교 정책에 학생 의견 적극 반영’과 ‘등록금 인하 및 반환’이 요구됐다. 방역 관련 측면에선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기존 방역 허점을 보완하는 추가 대책 방안 강구 등이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미래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원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전환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번 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고찰했다. △비대면 수업의 질 향상 △강구△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공공성 확립△학생 친화적 교육 패러다임 제시 등이 안건이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가정△장애인△저소득층이 교육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울트라 러닝이 신세대 교육 방안으로 떠올랐다. 빠른 속도로 집약적 교육이 가능한 울트라 러닝은 기존 교육 방식의 종언을 알렸다. 제프 매지온갈더(Jeff Maggiongalder) 온라인 교육 스타트업 기업 ‘코세라’ 대표는 “△가상·증강 현실 △사물 인터넷△5G 기술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 발달은 에드테크(Edtech)* 산업 진흥을 촉진해 울트라 러닝과 같은 혁신이 기존 교육 방식을 대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학 MIT는 전공 과정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게 온라인에 배포했다. 캐나다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한 학생이 1년 만에 MIT 컴퓨터 공학 4년 과정을 독파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리학교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 팀장은 “다음 학기 수업 방식 및 코로나19 방역 행정은 미정이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스위치 온 방식이 계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해 수업 방식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발전된 형태의 수업 방식이 나올 거란 기대도 내비쳤다. 권 팀장 역시 “지난달 세분위 우리학교 코로나19 단계별 실행방안이 다음 학기에도 이어질 거라 예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우리학교 행정 역시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우리학교의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에드테크(edtech) : 교육과 기술의 결합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about 이문일공칠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외대서림’이라는 대학 서점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 창구가 되고자 2019년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적·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대문구에 지식과 교양, 문화와 예술의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이문일공칠은 서울시캠퍼스스터운사업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도서 담당 제갈송현
E-mail_ info.imun107@gmail.com
Instagram_ @imun107_notice
blog_ blog.naver.com/imun107_hufs



BOOK

이문일공칠 서점은 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지적 경험의 터입니다. 고민, 취향, 바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묶인 도서는 자유서적 이자필 이사가 큐레이션했습니다.



COFFEE

이문일공칠은 라마르조코와 협력해 최상의 원두와 커피 맛을 선보입니다. 더불어 커피 클래스를 개설해,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ULTURE

이문일공칠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기관, 단체, 동아리 등과 협업해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문일공칠은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산하 기구입니다.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 불거진 실효성 논란

지난달 19일, 정부는 극심한 전세난 타개를 위해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및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전세 주택 약 11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전세 수요 관리가 아닌 전세 주택 매물 확대에 집중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난 대책과 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해결되지 않는 전세대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한 전세가격으로 전세시장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종합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약 1억 8천만 원이다. 그에 반해 이번 해 10월 평균 가격은 약 2억 원으로, 1년 사이 전세가격은 약 2천만 원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0월 첫째 주 기준 192다. 이는 서울의 심각한 주택 공급부족 현상을 보여준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 균형을 나타낸다. 이는 0~200 사이로 측정되는데 200에 가까워질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은 인기 많은 전세 매물의 경우 제비뽑기를 통해 세입자를 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전세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한다. 이번 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며 전세난이 가속화됐다. 가구의 분화도 전세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년간 서울특별시 인구가 4만여 명 감소했음에도 가구 수는 9만 6천여 가구 증가했다”며 1인 혹은 2인 가구 증가가 전세매물 부족 현상을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세난의 원인을 정부 정책 탓으로 보는 여론도 존재한다. 이들은 이번 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을 가속화했다고 본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부담을 느낀 임대인이 전세로 내렸던 주택에 실거주하며 전세매물이 감소했다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임차인을 주택에서 내쫓은 형세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도 전세난에 힘을 실었다고 말한다. 주택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는 전세 매물에 눈을 돌려 전체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공공임대 전세 공급에 집중한 정부

그동안 정부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등록임대사업자 폐지△새 임대차법 시행 등 여러 대안을 발표했다. 투기 차단과 임차인 주거권 보장에 집중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불붙은 전세대란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에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특별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이하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공공임대 전세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서울 3만 5천△수도권 7만 1천△지방 7천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전세매물을 확충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공공임대 전세매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해당 매물은 평균 전세시세의 90% 가격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질 좋은 평생 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30명형에 달하는 중형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다음 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실 상태인 △사무실△상가△숙박시설을 개조해 1인 혹은 2인 주거공간으로 공급한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정부의 전세대책에 엇갈린 여론

지난달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11·19 전세대책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긍정적 응답은 39.4%로 집계됐다.

대책에 찬성하는 이들은 적절한 임시방편이라 평한다. 단기간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난의 원론적 해결 방안이 될 순 없지만, 전세가격을 잡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란 것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부족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돼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1만 4천여 가구 공급 방안은 다세대 빌라 위주 물량이 대부분이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팅 회사 ‘도시와경

제’ 대표는 “수요가 있는 주택유형으로 전세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시장수요와 맞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다.

1인 혹은 2인 가구를 겨냥한 호텔 포함 숙박시설 공공임대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2009년 5월 정부는 소규모 가구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공실 발생△부실 시설△주거환경 열악 문제를 야기했다. 이때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단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세시장에서 시세 90% 가격의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국민의 전세부담은 해소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공공임대화가 이뤄져도 전세가격 부담은 여전한단 비판에 공공주택을 적정가격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전세대책이 국민의 아파트 중심 수요와 맞지 않단 지적에 대해선 이번 정책이 단기간 전세난을 해결할 최선이라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 과정은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빌라 중심의 매물 확충에 집중했던 것이다. 또한 아파트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하 박 위원)은 정부 전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물량△속도△지역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은 “매매시장엔 강한 규제가 안정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세시장은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기 어렵다”며 앞서 언급한 3가지 요소 충족을 목표로 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달 7일과 8일, 정부는 11·19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설명회를 열어 공공전세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달 내로 공공임대를 활용한 공실 전세형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가 단기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전세난이 진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저작권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통해 저작권을 바로 알리기 위한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합니다. 당첨자 5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퀴즈 이벤트

■ 기 간: 2020. 6월 ~ 12월 (주1회)

■ 문 제: 소설가 A는 포털사이트를 보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소설을 스캔한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그 파일을 복제해 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포털사이트에 그 사람의 성명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포털사이트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다음의 보기 중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 ① A가 판매한 저작물을 이용자들이 스캔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 ② A는 민사상의 소 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포털사이트가 A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으므로 이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다.
- ④ 포털사이트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설을 소개하기 위하여 소설의 스캔 파일을 올린 것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 퀴즈 응모·당첨자 발표:매주 월~목요일 보호원 누리집 (<https://www.kcopa.or.kr/>) 접속해 응모, 당첨자는 금요일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연예술계의 미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는 관객과 행위자 간 대면 소통을 지향하는 공연 예술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송출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공연예술계 운영방식이 달라졌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이하 김 총장)과 임동욱 우리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객원강의교수(이하 임 교수)를 만나 코로나19로 달라진 공연예술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김관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임동욱우리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객원강의교수

Q1.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연예술계 산업의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임 교수: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 분야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연예술 분야 피해액은 1,967억 원에 달합니다. 취소된 공연은 9,683건에 이르고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는 평균 연간 4천억 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는데, 이번 해 상반기는 1천억 원에도 못 미쳤어요. 공연예술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장면을 보고 즐기는 장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선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Q2.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연이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김 총장: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으로 대체 될 수 없습니다. 관객과 행위자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연예술은 현장에서만 볼 수 있죠. 복제되고 기록으로 남는 온라인 공연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온라인 실시간 송출을 통해선 공연 실황이 온전히 관객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Q3. 10월 22일부터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소비할인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티켓 예매 시 8천 원 할인 쿠폰 4매가 제공됩니다. 이런 지원은 실제 공연예술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김 총장: 공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해당 정책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책으로 관객이 더 원활하게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임 교수: 예술은 자금을 지원하고 법안으로 보호하는 기관이 개입해야만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악△발레△오페라△클래식 등 고급문화의 경우 티켓을 저가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한다 해도 취향이 맞지 않는 계층은 즐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중문화는 선택지식 없이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적 지원이 실시되면 생활에 와닿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현재 대중문화 지원에 치중된 방식에서 벗어나 보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Q3-1. 현 공연예술계를 위해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임 교수: 프랑스의 ‘앵테르미탕(intermittent)’ 제도처럼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입이 없는 기간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장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기에 정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수적이지요. 다행히 문체부의 예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지난해 400억 원에서 이번 해 710억 원으로 늘어났고 한국형 앵테르미탕 제도 실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Q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각종 공연예술 활동이 연기되거나 재예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유동적인 관객 수 조정은 공연예술 산업에 어떤 피해로 이어지고 있나요?

김 총장: 예를 들어 한 좌석 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을 때 실제 관객 좌석은 50%로 줄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연이 만석이라 해도 티켓 할인 등이 적용되면 실제 수익은 25~30% 정도죠. 실질적인 극장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극장들은 전체 가동률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 관객 수가 크게 줄어든다면 전체적으로 손익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엔 공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연 기획사는 사전 손익계산을 통해 공연의 규모와 극장 임대 기간을 정합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50%가 줄었으니 다음 기회에 50%를 더 벌면 뎀단 논리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부 추정보다 실제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Q5.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국공립 공연장은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고 있는 반면, 민간 공연장은 환불 정책이 까다롭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공연 기획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 총장: 극장의 환불 규정 중 하나가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초반엔 대관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일부 극장주가 대관료 일부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공연 기획자가 감당해야 할 피해는 전보다 커진 것이지요. 현재 많은 극장이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주가 따로 있는 민간 극장 같은 경우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임 교수: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는 이번 해 피해액을 3,900억 원으로 추산하는 만큼,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공립 공연장은 운영 손실분을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공연장은 소규모민 경우가 많아 극단에 대관료를 환불해 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소극장협회에 가입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했어요.

Q5-1. 이에 어떤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가요?

김 총장: 예술가들이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통한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연극인△예술인복지재단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해요. 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보전액에 대해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 교수: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대안은 일정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관람하는 방법입니다. 공연예술 고유의 특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도 피해를 줄이긴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형 기획사나 제작사만이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영세 소규모 공연장은 서버 구축이나 과금 적용 방식으로 인해 시도가 어렵죠. 공연장 자체가 밀폐된 공조 시스템으로 건축돼 있기 때문에 내부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고가의 음압 기능을 갖추기 전엔 어디든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4월부터 ‘공연장 대관료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연된 작품만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제3차 지원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전국 807개 단체와 개인이 총 48억 원의 지원을 받았죠.

Q6. 현재 해외 공연예술계 상황은 어떤가요?

임 교수: 세계 어느 곳이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심각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조차 코로나19 감염을 감수하고 공연예술을 강행하다 확진자수가 급증했죠. 결국 일부 지역 봉쇄를 택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관객 좌석 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적자가 계속돼 장기적으로 좋은 해결책도 아닙니다.

Q7. 무대예술 특성상 전염병은 공연예술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앞으로 공연예술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김 총장: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상 장르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문화로서 예술 향유방식이 만들어질 것이라 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방법이 개발돼 비접촉 혹은 거리두기 형식의 공연예술이 생길 것으로 예측합니다.

임 교수: 앞으로 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더 많은 소규모 공연장과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공연예술이 제곱했던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큰 고통이지요. 대중은 문화생활을 고대하기에 예술은 계속돼야 합니다.

김채현 기자 01cha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공자아카데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하계 단기연수 과정 및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로 문의 (Tel, 02-2173-3467-8) 또는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1. 중국어 강좌

- 회화, 新HSK, HSKK, 영화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등 다양한 강좌 개설 (수강 신청 최소 인원 3명 미달 시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 환급 제도: 외대학생인 경우 수업 95% 출석 시, 수강료의 70% 환급
- 시간표

08:00 ~ 08:50	[회화] 매일
10:00 ~ 12:00	[新 HSK] 화 · 목요일
10:00 ~ 11: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5:00 ~ 16: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5:00 ~ 17:00	[新 HSK] 화 · 목요일
18:00 ~ 19:30	[회화] 월 · 수 · 금요일
18:00 ~ 20:00	[新 HSK] 화 · 목요일
19:00 ~ 19:50	[회화] 매일

■ 찾아오시는 길

- 위치: 서울캠퍼스 본관 2층 220호
- 전화번호: 02-2173-3467~8
- 이메일: kongzi@hufs.ac.kr
- 홈페이지: http://gongja.ac.kr

2.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기회 제공(추천)

- 중국 현지 연수 및 석사과정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 기회 제공(추천)

가. 모집과정

1. 연수과정

- (1) 연수기간: 1학기, 1년 비정규과정
- (2) 연수분야: 여학연수
- (3) 연수학교: 중국 내 대학교(매년 중국 정부의 공고문에 따름)
- (4) 신청자격: 만 35세 이하(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만 지원 가능)

2. 석사과정

- (1) 학과: 한어국제교육
- (2) 기간: 과정 2년 정규과정
- (3) 학교: 중국 내 대학교
- (4) 신청자격: 만 45세이하, 학사학위 소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

나. 장학금 지원 내용

- 1. 등록금, 학비, 기숙사비 전액지원
- 2. 매월 생활보조비 지급

다. 신청 및 선발

- 1.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부터 모집(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2. 선발 방식: 면접 + 서류

*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www.gongja.ac.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자아카데미**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작은 연서

외대학보에 들어와 처음 썼던 기사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 떨렸던 첫 인터뷰와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를 완성했을 때 뿌듯함을 잊을 수 없다. 그 첫 기사를 통해 대학언론의 존재 의미를 깨달았다. 대학언론 기자로서 기사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방향성을 잡게 된 계기였다. 취재의 기본은 여러 사람의 다양한 입장을 듣는 일이다. 그때야 비로소 기사의 주제가 드러난다. 그 시작은 편집장으로 학보 생활을 마치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다.

정기자 시절 썼던 뒷담하는 기사를 다시 읽어봤다. 당시 ‘잘 견디며 단단한 사람이 돼 학보 생활을 마친다면 멋진 일을 해냈다고 얘기하고 싶다’로 글을 마쳤다. 학보 임기 중 마지막 발행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 문장을 읽으니 생각이 많아진다. 나는 과연 단단해졌으며, 멋진 사람이 됐을까.

이번 해 학보 생활은 단단해짐과 연약해지는 순간의 반복이었다. 여름 무렵 편집장을 맡기 시작하곤 한동안 자면서 소리 질렀다. 주어진 상황들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잦았다. 돌이켜보면 결국 자신을 향한 감정이었다. 학보 생활은 체력·시간적 한계 속에 최선을 끌어내야 하는 일이다. 잘 해내고 있는지 의심했다. 부족함을 원망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고 지나치는 것들도 늘어갔다. 조급함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한 호를 발행하기까진 매번 냉·온탕을 오갔다.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은 ‘담금질’ 하는 시간이었다. 그 결들이 쌓여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됐다.

학보사실에 쌓인 서사가 너무 많다. 대학 생활 절반 동안 쌓인 성장의 결들이 묻어나 있다. 이제 학보사실에서 밥설 일이 없단 사실이 낯설다. 지금 감정에 시원섭섭함만큼 꼭 맞는 표현이 없다. 아주 조금 해방감을 느끼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마감이 없는 다음 학기가 벌써 허전해지는 듯하다. 학보 밖을 나설 생각하며 참 헛헛하고 허무했다.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 싶어 쓸쓸했는데 돌이켜보니 참 애썼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학보라 그리움이 짙다. 진한 동료애를 넘어 전우애를 느낀다. 함께 애쓰며 서로를 성장시킨다. 때때로 화가 났다가도 금방 애뜻해져 버리고 만다. 이번 학기 같이 고생한 기자들이 부디 불운물 섞인 감정은 버리고 순수한 애정만 남겨가길 바란다. △강유덕 교수님△이준매 선생님△안홍섭 사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서투름을 믿고 따라준 모든 사람이 고맙다. 소중한 인연, 치열한 마감으로 가득 찬 학보사실이 한편에 남아 앞으로 힘 될 거다.

멋있는 일을 해냈지만 멋진 사람은 아니었다. 멋있어 보이는 일과 멋진 사람이 되는 건 다르다. 편집장을 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이젠 멋진 사람이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대학언론으로써 학보의 멋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의 멋을 찾아가야겠다.

헤지나 편집장

[책 ‘여자라는 문제’를 읽고] 과거에도 여성은 존재했다

작가 재키 플레밍의 책 ‘여자라는 문제’는 ‘왜 역사책엔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가’란 물음에서 출발한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여성은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2등 시민이었고 똑똑할 자격이 없었다. 여성을 향한 고루한 편견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작가는 역사에서 사라진 여성을 복기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이었던 과거를 비판한다.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여성이 이론 성취의 미천함을 지적하며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함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였기에 그 말은 곧 진리였다. 영국 정신과 의사 ‘헨리 모즐리’는 여자가 의학을 공부하면 가슴이 볼품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는 당시 사회 통념이었다.

과거 여성의 존재는 허상에 가까웠다. 길거리와 직장 어디서든 찾을 수 없었다. 여성이 할 수 있던 일은 오직 집안일이나 자수 정도였다. 가정을 박차고 나간 여성에게 ‘타락한 여자’란 낙인이 찍혔다. ‘해니 오클리’는 입에 물린 담뱃재를 명종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19세기 최고 명사수다. 그러나 그는 사격 실력이 아닌 양증맞은 발과 신발로 유명해져 서부식 여성 패션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그의 재능은 흔적 없이 잊혔다. ‘필리스 위틀리’는 흑인 여성 최초로 시집을 출간했다. 여성 시인을 믿지 못한 당시 18명의 남성 전문가들은 역사상 최초로 시인 자격을 검증했다. 이후 1840년, 세계

노예제 폐지 대회에서 여성 무리가 난동을 피우며 1세대 페미니즘의 막이 열렸고, 그제서야 여성의 역사는 시작됐다.

해당 저서는 과거 사회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가부장적 시대의 비합리성을 고발한다. 편견으로 구성된 사회는 여성을 향한 한계를 규정한 뒤 높은 벽을 세웠다. 한계를 뛰어넘은 일부 여성이 두각을 드러내면 사회는 그의 외모에 집중한다. 여성에게 필요한 요소는 능력이 아닌 외모임을 강조해 그들의 업적을 축소한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 능력자의 외모는 화젯거리다. 그들의 △머리△체형△피부의 변화는 성과를 가린다. 작가는 여성에게만 집중된 외모적 잣대를 비판함과 동시에 능력을 표출할 수 없던 그들의 좌절을 위로한다.

세상은 변한다. 가치관 또한 사회 흐름을 따른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진학은 남성보다 활발하다. 교육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주어졌고 누구도 이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역사 속 여성의 투쟁 덕분에 우리 시야는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사회에 차별은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 임금 차이가 있으며 여성을 향한 차별적 잣대는 여전하다. 그들이 우리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전해줬듯 우리 미래 세대에겐 온전한 평등을 선사할 숙제가 있다.

김민주 기자 01minju@hufs.ac.kr

[영화 ‘언컷 젬스’를 보고]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이번 해 1월,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된 ‘언컷 젬스(Uncut gems)’는 블랙 코미디 영화다. 주인공 하워드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영세 보석상을 운영한다. 그는 농구 도박에 빠져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탓에 불안한 일상을 보낸다. 빚 문제로 이혼할 위기에 빠진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거대 오팔을 수입해 이를 모면하고자 한다. 하워드는 해당 오팔을 팔기 위해 농구스타 가넷을 가게로 초대한다. 하지만 가넷이 오팔 대금을 추후 지불하겠다고 이를 강제로 가져가 버려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하워드에게 돈을 빌려준 아르노와 그의 일당은 하워드가 오팔을 수입했던 소식에 보석상으로 찾아온다. 하워드는 오팔 대금을 받는 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워드가 돈을 숨겼다고 의심한다. 영화는 △가넷△아르노△하워드의 만남이 끊임없이 어긋나는 상황을 연출하며 불안감을 조성한다.

영화는 내시경을 통해 보이는 하워드의 대장과 오팔의 이미지를 연결하며 시작한다. 또한 하워드의 총상과 오팔의 이미지를 연결하며 끝이 난다. 이는 하워드가 오팔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화 내내 오팔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워드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경매에서 오팔의 가치가 하락하자 하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진다. 영화 후미에서야 하워드는 오팔을 되찾지만 이를 도박에 사용해버린다. 자신을 내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대가로 하워드는 죽음을 맞이한다. 서사를 통해 영화는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물질이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우리는 여전히 사라질 물질에 스

로를 맡기고 있진 않은지 고민해봐야 한다.

더불어 영화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린 늘 타이밍의 어긋남을 안타까워한다. 시간만 맞았더라면 이뤄졌을 일이 이르거나 늦단 이유로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마다 우린 불운을 탓한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어긋남이 정말 우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영화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하워드는 중구난방의 말을 쉴새 없이 쏟아낸다. 그 때문인지 주변 사람은 그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거리의 소음 역시 관객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크게 재생된다. 가넷과 아르노는 하워드에게 거친 말로 불평을 쏟아내기 바쁘며 하워드의 가족 역시 그를 짜증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하워드가 가넷에게 돈을 받아 아르노에게 건넨다’는 매우 간단한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불통이다. 영화는 소통이 멈추고 폭력과 갈등이 그 자리를 메꾸는 과정을 보여준다. 불통 속에서 이뤄진 각 개인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충돌해 불행을 만들어낸다. 이는 소통을 포기한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소위 ‘한탕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읽힌다. 한탕주의는 개인이 희박한 확률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멍청한 생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쩌면 하워드는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추는 유일한 확률을 붙잡은 것일 수 있다. 그가 말도 안되는 확률에 스스로를 내걸도록 만든 건 가족과 가넷, 아르노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1050호 학보를 읽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어느새 차가운 바람과 함께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사다난했던 이번 학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에 우리학교 역시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외대학보는 끝과 새로운 시작 사이에서 우리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담아냈다.

지난해 12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의 출범을 알렸다. 같은 시기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새로운 총학생회 ‘더본(The 본)’이 선출됐다. 이들은 우리학교에 새로운 변화를 불어오렸단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학우의 마음을 얻었다. 외대학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들 공약에 대해 되짚어봤다. 이는 독자의 궁금증을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전달했다. 해당 기사는 이전 공약 내용을 표로 정리해 가독성을 높이고 자세히 비교해 독자 이해를 도왔다. 양캠 총학의 향후 계획과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기사를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한편 이번 해 우리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됐으나 일각에선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대학보는 해당 교육 내용과 실시 현황을 알리는 기사를

다뤘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폭력예방교육의 현 위치를 명확하게 짚어냈다. 또 독자에게 관련 내용을 상기시키고 인식 재고 계기를 제공했다. 우리학교 전문가 인터뷰를 담아 성인지 감수성 자체에 대한 인식 향상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지난 호 외대학보에선 학내 사안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그중 특히 이번 달 실시된 미국 대선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띄었다. 이는 다소 복잡한 진행 과정과 전문적인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했던 점에서 유익했다. 또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1050호에선 △상속세 논란△정보격차 문제△청년 노동환경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뤘다. 박성웅 배우의 인터뷰로 독자의 흥미를 불러오기도 했다.

끝으로 언제나 우리학교와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돼 준 외대학보와 학기의 마무리를 함께하며 애쓴 모든 기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계절의 순환처럼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저마다 차근차근 준비한 마지막은 좋은 시작을 불려오리라 믿는다. 이처럼 다가올 모두의 시작이 안전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1050호 학보를 읽고 낯선 겨울을 지나 봄으로

문학에 ‘낯설게 하기’란 개념이 있다. 이는 당연하던 일상을 낯설게 만들어 평소 의식하지 못한 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등장한 이래 우리의 삶은 ‘낯설게 하기’의 연속이다. 감염 위험 속에서도 온라인 방식을 택했던 일상은 매 순간 우리를 익숙하고도 낯선 세계로 내몬다. 이 세계는 반복되던 일상에 묻혀 있던 문제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외대학보는 1050호를 통해 대학 내 이런 문제를 파헤쳤다.

면에선 우리학교의 폭력예방교육과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는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그래프로 제시해 폭력예방교육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교육의 내용과 구성이 개선됐다 해도 주입식 강의란 형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의미를 갖지 못한단 점을 정확히 꼬집는다. 젠더 문제는 대학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기사를 통해 많은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받는 폭력예방교육을 낯설게 볼 수 있었다.

5면은 학교 관련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심화된 정보격차 문제를 전달한다. 학내 정보 접근성 격차는 학교생활 내내 부딪히는 문제임에도 해결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던 정보를 많이 놓치게 됐다. 이런 시기에 해당 기사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기사에

서 중요 공지사항의 경우 △문자△의대 앱△이메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중요 공지를 정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접이 생기는 것 같다. 따라서 학교는 이중 전송 변경 시기나 면학 장학금 신청 시기 등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을 조사하길 바란다. 알림으로 인한 피로감은 줄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1050호는 양캠퍼스 총학생회 공약을 돌아보는 기사를 담았다. 또한 7면에선 청년 대상의 노동착취 문제를 조명하고 사회 면에서 미국 대선을 분석해 사회 이슈를 간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읽어서 세계 속으로 코너에서 낙태죄에 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을 소개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력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코너에선 옛날 글로벌캠퍼스 정경을 볼 수 있었다. 다시 전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금, 우리학교를 그려볼 수 있어 반가웠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번 학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을 외대학보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비록 마스크가 서로의 얼굴을 가리고 모니터 속 낯익은 대화만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린 어떻게든 연결돼 있지 않은가. 매 순간이 서툰듯 낯선 이 혹독한 계절이 지나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봄이 오길 기다린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

국 · 부장 고정칼럼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해 초의 늦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다시 겨울이 될 때까지 종식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각종 행사들이 취소됐고 매일 뉴스에선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마스크는 당연한 소지품이 됐다. 그럼에도 이 처음 겪는 일을 잘 버텨준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이번 해의 마지막은 다음 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4면에선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양캠퍼스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다뤘다. 총학생회장 선거본부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출마 현황과 공약을 알아봤다. 5면에선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무산과 함께 학생자치의 이탈화에 대해 살펴봤다.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인식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찾아오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것 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7면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다.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도 달라지고 있다. 9면에선 코로나19로 인

해 멈춰있던 공연예술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모색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청년들 사이에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3면에선 우리사회와 우리학교에서의 젠더균형에 대한 논의를 알아봤다. 여성의 학력은 점점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학교는 과연 젠더균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폈다. 점점 올라가는 집값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8면에선 화두에 오른 정부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다.

마지막은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그러나 아쉬움과 후회가 있기에 새로운 시작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외대학보도 이번 해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더 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러 한다. 다음 해에도 외대학보는 끝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최민선 부장 99minsun@hufs.ac.kr



코로나19 시대를 졸업하기 위한 금융 · 통화정책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중순 코스피 지수는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는 30여년 만에 최대의 폭락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매수가 급증했고, 6월에는 이미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현재의 주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백신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판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경제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주가지수는 왜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것일까?

주식시장은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수익창출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다. 투자자는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무엇보다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영업이익 정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사업성이 밝고, 기술혁신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를 통해 주주는 높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매도를 통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결국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의해 개별기업의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시장참여자들의 정보공유가 완벽하지 않고, 시장참여자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이의 행동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무엇보다 주식은 채권, 부동산, 예금 등과 같은 투자대상의 일부이며, 자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금융상품과 대체제 관계를 형성하고,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저금리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면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주가는 개별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합산한 것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반면에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면 개별기업의 사업전망과 경기와 무관하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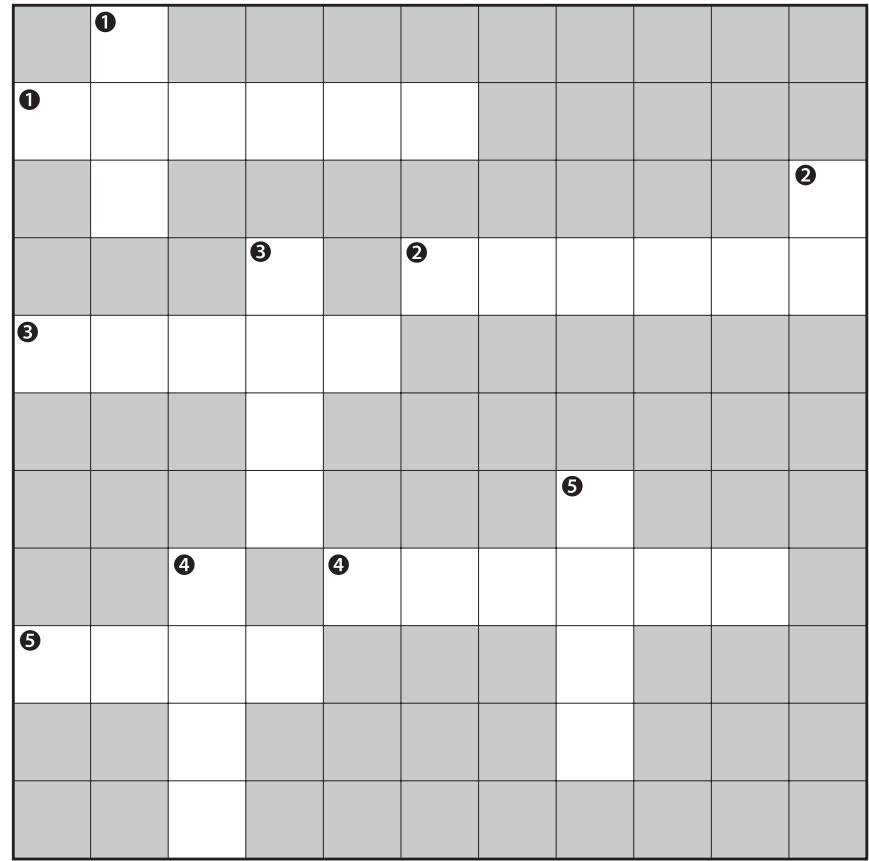
현재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시중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0%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도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침체를 막고, 디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중은행에 가능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각국의 정부들은 대규모의 적자예산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확장적 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금융시장의 구석까지 깊숙이 들어간 유동성을 어떻게 회수하느냐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당국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음(-)의 방향으로 자산효과가 발생하면서 소비 ·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특히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높아지면서 재무건정성이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금융시장의 특성 상 한 국가의 금융 · 통화 정책은 다른 국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2013년 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실시해온 양적완화를 종결할 뜻을 발표했다. 이 소식만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했다. 국경간 자본이동에 관한 장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미국시장으로 자금이 몰려간 것이다. 이러한 자본유출로 인해 일부 신흥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가 간 금융 ·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보일 경우 신흥국 위주의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했던 것만큼의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정책에서 졸업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달 21일과 22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퍼스)에서 2021학년도 양캠퍼스 수시모집 000000를 실시했다. (1면 참조)
 2.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00000 수준은 32.4%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3면 참조)
 3. 우리학교 각 단위별 학생 선거 및 000000 선거는 매해 11 · 12월에 치러진다. (5면 참조)
 4. 000000는 전세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사이 균형을 나타낸다. (8면 참조)
 5. 0000 '찰스 다윈' 은 여성이 이론 성취의 미천함을 지적하며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함을 주장했다. (10면 참조)
- 세로**
1. 우리학교 인문대학 000은 이번 해 창학 40주년을 맞았다. (2면 참조)
 2. 이어 "선거 공정성과 00합리성에 대해서도 학생이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4면 참조)
 3. 8장 '오만과 편견' 에선 당시 0000의 호칭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번역할지 등을 독자에게 쉽게 전달한다. (6면 참조)
 4. 이번 해를 돌아보며 00 00의 미래를 살펴보자. (7면 참조)
 5. △국악△발레△오페라△클래식 등 0000의 경우 공연은 티켓을 자가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한다 해도 취향이 맞지 않는 계층은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9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9_jina@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허지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의 신화

엄홍길

대장을 만나다

어려서부터 '원동산'을 벗삼아 지낸 엄홍길(동양학·중어 02) 대장(이하 엄 대장)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악인이다. 1988년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초오유 시사뽕마△안나푸르나 남가파르밋△칸첸중가 K2봉 등을 완등하며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했다. 이젠 봉사라는 새로운 17좌 목표를 위해 노력 중인 엄 대장을 만나보자.

Q1.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전문 산악인이 됐는데, 이 길을 걷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세 살 때부터 부모님이 원동산에 거주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산 자체가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가 됐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산의 재미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암벽지대에 호기심이 생겨 암벽 등반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은 훗날 산악인이 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악인으로서 유리한 조건인 상·하체가 발달하게 됐죠.

Q2. 산악인으로 활동하는 도중 우리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언어 장벽을 느껴 우리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주로 가던 △네팔△타베트△파키스탄에선 언어를 잘 몰랐어도 소통이 원활했어요. 그러나 중국에선 언어 장벽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매번 통역가를 동행해 활동하니 불편했죠. 그래서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후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생긴 뒤 우리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중국어에 귀가 조금씩 트며 중국인과 기본적인 대화도 할 수 있었죠.

Q3. 우리학교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2004년에 우리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산악부 △동기△선배△후배와 히말라야의 알통강을 등산하기로 했어요. 15좌 완등을 우리학교 산악부원과 함께했습니다. 등반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완등에 성공해 정상에서 당시 안병만 우리학교 총장과 영상 통화도 했어요.

Q4.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를 완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매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성공한 순간△실패한 순간 △사고로 동료를 잃은 순간 모두 생생히 뇌리에 각인됐죠. 히말라야 16좌 완등까지 22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10명의 동료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순간이 특히 잊히지 않네요.

Q5. 등산하며 겪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정말 많은 위기를 겪었고 그럴 때마다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요. 위기는 결코 오래가지 않거든요. 위기가 두려워 포기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신의 영역인 해발 8,000미터 등산엔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 동반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순간을 극복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죠. 위기의 순간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극복했어요. 누구

결하려 해요. 등반할 땐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심리 상태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대장으로서 항상 대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해요.

Q7. 히말라야 16좌 완등 후 소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이 두 문장이 생각났어요. 성공엔 제 능력과 의지도 중요했지만 동료의 있었

활동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5월 28일 네팔로가 구호 활동을 했죠.

Q9. 인생 17좌 목표가 봉사입니다. 이 목표를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히말라야 16좌 완등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제 노력과 의지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에 완등을 성공하면 받은 은혜를 베풀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히말라야와 약속했습니다.

Q9-1. 현재 17좌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나요?

17좌의 초기 목표는 전부 도달했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초기 17좌 목표는 네팔에 학교 16개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네팔 아이들을 만나며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6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12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17좌 목표를 달성했죠. 그 과정에서 네팔의 교육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교 설립 외에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교육 마을 건립이 새로운 18좌 목표가 됐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란 말처럼 우리학교 후배가 넓은 세계를 봤으면 해요. 우물 안에 있으면 본인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물 밖으로 나왔으면 해요. 한계를 뛰어넘고 새롭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히말라야 등반 전엔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나 히말라야 등반에서 실패를 맛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했죠. 후배들이 꿈을 갖고 더 큰 세상을 위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 중인 엄홍길 대장

든 자신의 길을 걷다보면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벗어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낙오자가 되죠.

Q6. 긴 시간 함께 하는 산악 원정대는 서로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원과 협력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또 대원들 사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나와 동료는 하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원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정대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때문이죠. 갈등이 생겼을 땐 대원 개개인의 생각을 파악하려 합니다. 대원과 면담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같이 해

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함께한 동료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무사히 완등할 수 있게 허락해준 히말라야 산도 정말 감사했죠. 해발 8,000미터의 히말라야 산은 신과 죽음의 영역이라 불릴 만큼 온전히 인간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해요. 결국 신과 산이 절 받아줬기에 16좌 완등이 가능했습니다.

Q8. 2015년 5월 25일에 발생한 네팔 대지진 당시 네팔에서 구호 활동 및 학교 설립을 했습니다. 구호 활동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2008년 5월부터 '엄홍길휴먼재단'을 설립해 네팔 산지에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당시 네팔 대지진 소식을 접하자마자 구호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홍보대사로